

지역 소식통

부안군,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모집...17일까지 신청

부안군이 2024년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안전관리요원은 모두 103명으로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48일간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 5곳(변산, 모항, 격포, 고사포, 위도)에서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자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응급처치 관련 자격 보유 시 우대해 채용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2억원 돌파

고창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재외군민과 지역기관·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액 2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고창군은 세액공제와 우수한 지역 농수축특산물인 담래품을 앞세워 작년 한 해 5,097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 올해도 꾸준한 기부자 증가를 통해 이미 1,800명이 고창군에 기부하여 2억원을 모금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중이다.

고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운영심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담래품 선정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9일 개최된 고향사랑기부제운영심의회(위원장 김철태)에서는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기부사업의 선정,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지정기부사업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담래품 선정위원회(위원장 최종업)에서는 고창의 전통식품인 콩나물 잡채 등 3개 품목의 담래품을 추가 선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민생 안정 프로젝트 총력

## 4874억원 민생 안정자금 긴급투입... 40개 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역경기 회복과 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4,874억원 상당의 민생 안정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고창군은 농어민, 소상공인, 어르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민생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4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53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군민실질소득 향상사업은 △고창사랑상품권 지원확대 △소상공인용 자 지원 확대 △농민수당 지원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운영 △신혼·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이다.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고창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비를 24억원 추가확보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를 25개에서 31개소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액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1회 추경을 준비하며 재원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번 1회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예산 증액, 생활여건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회복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철태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해 각종 보조사업, 투자 부문 SOC 사업,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43개의 소비투자 통계목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군민 지원정책을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며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 '더 큰 도약'이라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염소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

### 총 5개 사업 2억5300만원 투입

정읍시가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개의 식육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육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대체 수요로 염소 사육농가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염소 품종 지원 △염소 경쟁력 강화 사업 △축산 기자재 지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사업비 2억5,300만원을 투입한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염소 품종 지원사업은 열악한 시설에 높은 폐사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가에 면역증강제 및 건초를 지원하고, 고능력 우량 종자 염소를 지원해 근친 번식을 방지하여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한 염소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시장이 개방돼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염소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체중측정용 저울과 미네랄 급이기, 생균제, 음용수 질 개선제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새일센터, 여성취업 성공 멘토지원단 발대식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지난 3일 여성가족부 주관 사후관리사업 일환으로 여성취업 성공 멘토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현장 멘토&성장멘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자(멘토)와 구직 여성(멘티) 상호 간 직업정보와 직장적응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멘토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해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위촉장을 전달받고, 직장 적응 노하우를 공유했다. 정읍새일센터는 구인 수요가 높은 여성 취업 희망 직종인 3개 직종



을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멘토와 멘티 1~2명을 매칭해 취업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취업까지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멘토링 3개 직종은 사회복지, 사무경리, 조리분야로 각 분야별 멘토는 취업에 성공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준비 방법부터 관련

교육정보, 업무분야 노하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훌륭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소그룹을 이뤄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밀착 코칭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취업역량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 옥정호 상수원 수질 보호 앞장

### 정읍시, 광역상수원 지킴이 수변 정화 활동 및 점검

정읍시가 상수원인 옥정호의 수질을 보호하고 오염원 관리를 위해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이하 상수원 지킴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도원천 지킴이 2명, 상수원 지킴이 19명을 선발해 유사시 상수원의 통로로 활용되는 도원천과 옥정호를 보호하기 위해 오염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 등 지속적인 수변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상수원 지킴이는 상수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민을 선발해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도원천 지킴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근 지역주민으로 선발해 상시 감시가 가능하고 수질오염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에는 지킴이들을 운영해 방치 쓰레기 8,210kg 수거, 불법 낚시·어로

행위 등 232건 계도, 축산농가 방문 오염원 적정 처리 안내, 안전펜스 등의 시설물 관리를 했다. 또한 매일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하천과 취수구 일대를 순찰하며 수질 유지에 주력했다.

시는 5월부터 옥정호 상수원의 수면 상태 관찰·조사 업무 및 녹조 상황에 신속히 대응 하고자 옥정호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별도 채용·운영해 지속적으로 옥정호의 수면 상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도원천과 옥정호의 수질 오염 우려를 해소해 시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락객과 낚시객이 증가하는 7~8월 휴가철 기간에는 주말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해 상수원 구역의 정화 활동과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수질 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부안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개최했다.

## 부안군, 제102회 어린이날 큰 잔치 개최

부안군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부안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개최했다.

군이 주최하고 원불교 삼동청소년회 부안지회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교육지원청 공동 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5대 마당(공연, 놀이, 체험, 먹거리, 나눔마당)을 열어 800여명의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기념행사는 풍물패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을 열어 어린이현장 낭독, 축사, 내빈들의 투호시투 등을 통해 행사를 기념했다.

문화행사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딱지치기, 고무신 던지기 등의 민속놀이와 에어바운스, 명랑운동회 마당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풍성한 행사를 위해 버블 공연, 마술 공연 등의 볼거리와 어묵, 인절미, 팝콘, 솜사탕 등의 먹거리를 제공했고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포토존 부스를 운영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했다.

부안교육지원청에서는 참여하는 아동과 가족을 위해 즉석에서 짜장면 1000그릇을 조리해 든든하고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으며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동이 체험 후 카드에 받은 스티커 개수에 따라 선물을 지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